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 선교사제 영입 과정에 참여한 임성실 베드로 관련 자료 (1)

- 신자들의 증언 속에 드러나는 임성실 베드로,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자료 -

교회서적을 통해 천주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신앙공동체를 만든 한국천주교회는 초창기부터 선교사제 영입을 필수적 과제로 삼았습니다. 최초의 선교사제인 주문모 신부는 물론이고 1830년대부터 조선교회를 맡게 된 프랑스 선교사제들은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 몰래 입국하여 활동했습니다. 이때 국경을 넘어 선교사제들을 영입하고 그들을 수행하면서 사목활동을 보좌했던 조선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선 신자들에 대한 자료는 많이 남아 있지 않고, 그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선교사제 영입 과정에 참여했던 신자들에 대한 자료를 정리·소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앞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진척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소개할 인물은 김대건 신부가 1845년에 상해로 가서 페레올 주교와 다블뤼 신부를 데리고 입국했을 때, 또 1846년 황해도 가서 중국 배와 접촉했을 때 모두 참여했던 임성실 베드로[관찬사료에는 임성룡(林成龍)으로 나뉩습니다. 1846년 여정 때 임성실은 김대건 신부와 함께 붙잡혀 심문을 받았는데 결국 배교하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부친 임치백[임근집] 요셉은 아들과 연관되어 체포되었는데 김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신앙을 끝까지 지켜 순교했습니다.[1984년 시성]



순위도에서 체포되는 김대건 신부와 신자들[선장 임성실, 사공 엄수] (탁희성 그림)

임성실의 체포와 심문, 유배에 대해서는 김대건 신부의 서한과 관변 측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배형에서 풀려난 뒤에 다시 교회로 돌아와 선교사제 영입에 계속해서 참여한 사실은 교회 측 자료[신자 증언, 선교사제 서한]에서 확인됩니다.

앞의 자료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기념 자료집’ 제1집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서한』(2020년)과 제3집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체포와 순교』(2021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스무 번째 서한’과 『해서문첩록』의 임성룡[23세 공초(총 3회)]가 그것입니다, 이외에 『일성록』 현종 12년(1846) 8월 8일 기사에 임성실[임성룡]의 평안도 유배 사실이 나옵니다.[成龍 陽德 縣 爲 奴 定 配]

반면, 교회 측 자료에 나오는 임성실 관련 내용은 이제까지 별도로 정리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10월호에서는 임성실에 대한 교회 측 자료 중 시복재판 증인으로 나온 신자들의 증언, 즉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의 기록을 정리하여 소개하겠습니다.

### 51회차 시복재판 : 함 막달레나의 증언 (1883년 9월 19일) [연구소 역주본 2책 83~85쪽]

\* 증인 함 막달레나의 남편 김성서 요아킴은 임치백의 처남이자 임성실의 외삼촌이 됩니다. 김성서는 임성실과 함께 김대건 신부와 동행했다가 김 신부와 임성실이 체포될 때 피신했습니다. 외숙모인 함 막달레나의 증언을 통해 임성실의 가족과 인척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 [3권 7상]

임(치백) 요셉은 죄인[증언자의 시누이의 남편이요, 죄인 집에 자주 다니고 ... [3권 7하] 병오년 4월에 그 아들[임성실이 웅진(예)서 김(대건) 신부와 한가지로 잡힌 말을 듣고 아들을 빼(내)려고 내려갔다가 아들과 같이 잡혀 서울로 올라와 포(도)청에 갇히매 성교[천주교] 봉행하는 사람으로 증거하여 말하고, 그때 갇혔던 (임치백) 요셉의 아들[임성실]에게 들은즉 (임치백) 요셉이 이 형벌에 굴(복)하지 아니하여 종내 한결같이 마음을 써 대답하고 그때 영세 전인 고로 김(대건) 신부께 대세(代洗)한 후 나중에 교(수)하여 치명하고 ...

### 61회차 시복재판 : 이 데레사의 증언 (1884년 3월 17일) [연구소 역주본 2책 205~207쪽]

\* 증인 이 데레사는 임성실의 처제입니다. 1884년 당시 이미 죽은 임성실에게 김대건 신부의 치명 사실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데레사의 증언을 통해 임성실이 임치백의 큰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 [3권 49하]

병오년(1846) 치명 사정을 다 형님[언니](의) 남편[형부(兄弟)] 임 베드로 성실이에게 들은 말이오나 지금 죽고 없습니다. 그 말 들은즉 병오년 봄에 김(대건) 안드레아 탁덕(鐸德, 신부)이 황해도 웅진(龜津)으로 배 타고 지나시다가 잡히시어 서울로 올라 와 그해 7월에 새남터에서 참수치명하시고 ...

### [3권 50상]

[임치백이] 병오년에 맏아들 임(성실) 베드로가 김(대건) 신부와 같이 배에서 잡힌 말 듣고 즉시 용진(甕津)으로 내려가 “첨사(僉使)와 친하니 다 빼어 오겠다.” 하나 어찌 된 사정인지 자기까지 잡혀 수감 받고 서울 포(도)청으로 온지라.

## 67회차 시복재판 : 임 안나의 증언 (1884년 4월 17일) [연구소 역주본 2책 287~291쪽]

\* 증인 임 안나[1836년생]는 임성실의 여동생입니다. 임 안나의 증언에 의하면, 큰오빠인 임성실 외에 작은오빠[임성실의 남동생]이 있었고, 임성실이 1880년에 사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3권 79상]

김(대건) 신부는 병오년 봄에 죄인의 오라비 임(성실) 베드로와 배 타고 시골 가다가 잡히시어 서울로 올라와 갇히셨다가 참수치명하신 말을 집안에서 듣고 특별히 큰 오라비 (임성실) 베드로에게 들었습니다. (임성실) 베드로는 김(대건) 신부와 같이 잡혀 같이 군난 당한 고로 그 사정을 자세히 알더니 4년 전[1880년]에 죽었습니다. ...

### [3권 80하]

[임치백이 체포된 후] 포교들이 들어와 집안 식구 조모와 가운데 오라비와 두 오라버니[올케]과 죄인[증언자]과 두 살 된 동생까지 잡아가고 죄인의 모(친)와 작은 오라버니만 빠져나(오)고 집과 세간을 다 적몰(籍沒, 몰수)하여 갔습니다.

## 72회차 시복재판 : 김성서 요아킴의 증언 (1884년 4월 29일) [연구소 역주본 2책 359~361쪽]

\* 증인 김성서 요아킴은 임성실의 외삼촌입니다. 같이 황해 여정에 참여했다가 김대건 신부와 임성실이 체포될 때 피신했습니다. 김성서의 증언을 통해 여정에 동행했던 신자들을 알 수 있습니다.

### [4권 6상]

[김대건 신부가] 서울(에)서 배 타고 황해도로 호선(胡船, 청나라 배)을 만나려고 가신지라. 그때 선인(船人, 뱃사공)은 임 베드로 성실이라, [또 다른 사람인] 엄 서방, 노 서방, 안순명이요, 박 베드로 성이와 죄인[증언자]이더니 신부 복사는 이 배난시오이라.

### [4권 6하]

[순위 첨사가 군사를 보내] 김 신부를 잡아 ... 임(성실) 베드로와 엄 서방을 잡아간지라. 복사와 다른 사공은 어디로 가서 잡히지 아니하고 죄인과 박성철이는 그날 밤에 종선(從船, 큰 배에 딸린 작은 배) 타고 도망하여 서울로 왔더니 ...

## 84회차 시복재판 : 박성철 베드로의 증언 (1884년 7월 16일) [연구소 역주본 2책 535쪽]

\* 증인 박성철 베드로는 임성실, 김성서와 같이 황해 여정에 참여했다가 김대건 신부와 임성실이 체포될 때 피신했습니다. 박성철의 증언을 통해 여정에 동행했던 신자들을 알 수 있습니다.

### [4권 60상]

김(대건) 신부가 배를 타고 황해도로 가실 때에 죄인(증언재)이 화장(火匠, 심부름꾼)이로 갔더니 배 동무는 임(성실) 베드로와 김(성서) 요아킴과 임 서방, 노 서방과 엄 사공과 신부 복사이더라. ... 같이 잡히기는 임(성룡) 베드로, 엄 사공과 신부가 한가지로 들어가고 추후에 노 서방, 임 서방 두 사람이 일 동정을 살피고자 하여 내려가 오래도록 다시 아니 온즉 죄인과 김 요아킴이 큰 배는 버리고 거루[뜻이 없는 작은 배] 타고 닻새 만에 서울로 와(서) 말 들은즉 김 신부와 임 베드로와 엄 사공이 벌써 서울로 잡혀와 포(도)청에 갇힌지라.

## 86회차 시복재판 : 박순집 베드로의 증언 (1885년 1월 27일) [연구소 역주본 2책 563~567쪽]

\* 증인 박순집 베드로는 김대건 신부와 임치백의 순교 사실을 임성실과 김성서에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박순집의 증언을 통해 그가 임치백 집안과 1846년 이전부터 교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4권 72하]

병오년에 치명하신 75 김(대건) 안드레아 탁덕[신부]을 군난(窘難, 박해) 전에 못 보았으나 군난 당하신 사정을 임 베드로 성실이와 김(성서) 요아킴과 그때 같이 일 당하던 여러 교우에게 듣삼고, ... [순위도에서] 김 신부와 임 베드로가 잡힌지라. ...

### [4권 73하]

임 요셉 군집[임치백]이는 가끔 죄인 집에 다니는 고로 어려서부터 아웁고 그 처자가 성교(천주교)를 봉행하되 자기는 수계하지 아니하고 ... 교인(敎人)으로 잡혀 서울 좌포청에 와 있을 때 현(석문) 가롤로와 김(대건) 신부께 성교 도리를 배우고 옥중에서 신부께 영세하고 종시 굴(복)하지 아니하고 치명 잘한 말을 그 아들 임 베드로와 김 요아킴과 여러 교우에게 들었습니다.

... (다음 호에 계속) ...

이석원 프란치스코(연구실장)

## 소식과 공지

▣ 『교회사학』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3호, 9월 30일 간행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안성본당 자료집』(전 2책)과 함께 '선교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과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